

중국 조선족 문학과 중국어 창작

-리근전의 중국어 창작과 번역 발표를 중심으로¹

이해영(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과)

1. 들어가기

중국 조선족 문학은 그동안 많이는 한국 문학의 범주에서, 해외 한민족 문학의 한 갈래로 논의되어왔으며 그의 다른 한 중요한 의미 범주인 중국 내 소수민족 문학이라는 측면은 상당부분 외면되어왔다. 일부에서 혹 중국 조선족 문학과 한족 문학과의 관계를 비교적 측면에서 검토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연구는 어디까지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그러한 연구 역시 결과적으로는 중국 조선족 문학을 중국 내 소수민족 문학으로보다는 해외 한민족 문학의 한 갈래로 바라보았다. 중국 조선족 문학의 특수성 내지 이중성의 한 측면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 문학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중국 조선족 문학이 중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 문학에 대한 편향된 연구는 우리에게 왜서 조선족 문학이 중국의 소수민족 문학이면서도 정작 중국학계에서 철저히 외면당해왔는지, 왜서 조선족의 작가 중에는 만족, 티베트족, 회족, 몽고족, 묘족, 어원커족 및 기타 소수민족의 작가들처럼 전국적인 문명을 획득한 국가적 수준의 작가가 배출되지 못했는지, 왜서 조선족의 작품 중에는 회족 작가 霍达의 「穆斯林的葬礼」와 같은 명작이 배출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는 조선족의 교육수준이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며 몽고족이나 장족 등 소수민족을 초월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중국 조선족 문학은 해외 한민족문학의 측면에서는 조선문학, 한국문학과 더불어 세계조선어문학권의 3 대 산맥을 이룬다²고 평가 받는 것과는 달리 중국문학 속에서는 같은 소수민족 문학으로서 티베트족이나 몽고족, 회족, 묘족 문학의 위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변두리 위치에 처해있다. 중국 주류문단과 조선족 문단의 관계는 그러므로 조선족 문단이 비록 중국 작가협회 연변분회의 형식으로 소속관계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매우 느슨한 편이며 조선족 문단이 중국의 문예정책의 이행과 같은 정치, 사회적 변화에 대해 중국 주류문단을 통해 수용하고 중국 문단의 대표적 작품을 수용할 뿐, 조선족 문학작품은 중국 문단의 관심과 이목을 전혀 끌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 조선족 문학이 중국을 창작환경으로 하면서도 중국의 통용문자인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 내지 조선어로 씌어졌으며 극히 적은 단 몇 편의 작품만이 특별한 수요에 의해 중국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조선족 문단에서 중국어로 창작을 하는 작가들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이며 이들은 “중국 조선족 문학의 주된 흐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³ 이는 중국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초기부터 연변에 조선족 자치주를 설립하고 민족교육과 문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중국 조선족 문학에서 중국어 창작의

¹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09-MB-2002).

² 조성일, 「세계조선어문학권에서의 중국조선족문학의 위상」, 『조선족 문학 개관』, 연변교육출판사, 2003, 147쪽.

³ 김관웅, 「중국조선족문학의 역사적사명과 당면한 문제 및 그 해결책」, 국제고려학회 문학부회.연변대학 조선어어문학학부 편, 『조선민족문학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9, 88쪽.

문제는 러시아 고려인 문학, 재일동포문학 등 기타 해외민족문학에서 민족어 창작이나 거주국 언어 창작이냐의 문제처럼 심각하게 표면화되거나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충격으로 인한 조선족의 민족 집거지의 해체에 따른 생존환경의 변화와 창작환경의 변화, 그리고 중국문학 속에서 조선족 문학의 위상 정립의 요구 등으로 하여 중국 조선족 문학에서 중국어 창작의 문제는 더는 간과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필연적으로 중대한 논쟁적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조선족의 제 1 세대 작가이자 주로 중국어로 창작하였고 발표는 번역하여 한국어(조선어)로 하였던 리근전의 중국어 창작과 번역 발표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 구명하는 것은 그러므로 변화된 환경에서 중국 조선족 문학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모색으로 된다.

2. 중국어 창작의 의미

중국 조선족 문학에서 중국어 창작의 의미를 논의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것이 이중어 글쓰기의 한 형식인가 즉 조선어, 중국어로의 창작이 모두 가능한 작가가 외적인 상황의 개입이나 혹은 자유의지에 의해 그 중의 한 언어를 선택한 경우인가, 작가의 제 1 언어로서 중국어 창작인가, 전적으로 작가의 언어 선택의 문제인가, 외적 상황의 개입에 의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이는 작품의 구상과 실제 창작 시의 언어가 일치한가 일치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다시 말하면 작가의 구어와 문어의 일치와 불일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는 기타 해외민족문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제이다.

작가 리근전이 우리 말보다 한어에 더 익숙하고 그의 작품의 대부분이 한어로 창작되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의 두 편의 장편소설 『범바위』와 『고난의 년대』 역시 한어로 창작된 후, 역자에 의해 번역된 것이다. 강정일은 리근전에 대한 추모문 「손에서 붓을 놓지 않은 작가」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정작 편집에 착수하고 보니 걸리는 문제도 많았다. 우선 문학은 언어예술인만큼 작품의 제 분야에 거쳐 세련된 언어로 일관되어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범바위』는 그렇지 못하였다. 세인이 거의 알다시피 리근전선생은 조선말보담 한어에 능한 분이였다. 그러므로 『범바위』 이전의 그의 작품 거의가 한어로 씌어진 것이였으며 또 그것으로 문단에 오른 것도 사실이다. 『범바위』도 한어로 집필된 것이다. 그것을 어느 역자에게 부탁해서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이 분명했다... 리근전 선생은 『범바위』 원작이 한어문이었음은 승인했으나 누가 번역했는가 하는 나의 물음에는 시종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나는 그 역자를 누군지 모르고 있다.

.....

70 년대의 말꺼라 생각된다. 그때 연길 북산가 언덕 밑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집을 리근전선생이 아들을 앞세우고 찾아왔다. 어디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무등 반갑기만 하였다. 그날밤 그는 처음으로 장편소설 『고난의 년대』의 구상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밤이 깊도록 진지하게 소감을 주고 받았다.

이것을 계기로 그후 우리는 자주 상종하게 되었는데 지어 집필과정에서 그는 종종 나를 찾곤 하였다.

80 년대초엽에 드디어 『고난의 년대』 상집의 초고가 탈고되자 리근전선생은 나더러 역자를 담당해달라고 청을 들었다..... 사양, 사양하다가 나중에는 하는수없이 출판사 지도부의 동의를 얻고 마침내 역자담당을 응낙하고말았다.⁴

위의 인용문 중 한어(汉语)란 중국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증언은 리근전이 조선말보다 중국어에 능하며 대부분의 작품이 중국어로 창작된 것이고 중국어 창작에 의해 그가 문단에 등단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두 편의 장편소설 『범바위』와 『고난의 년대』 모두 중국어로 창작되었으며 작가의 의도에 의해 우리말로 번역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증언은 리근전이 『범바위』 원작이 중국어로 창작된 것이고 역자에 의해 우리말로 번역 발표된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⁴ 강정일, 「손에서 붓을 놓지 않은 작가」, 『장백산』, 1997, 6, 14-15 쪽..

꺼려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리근전이 조선말보다 중국어에 능하다는 부분이다. 리근전이 조선말에 어느 정도 서투른지, 아예 조선말로 창작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중국어에 어느 정도 능한지, 어떤 도경을 통하여 언어, 문자를 습득하였으며 초기 습작기의 언어는 어느 언어인지, 발표작은 어느 언어인지, 또한 말하기와 쓰기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모두 중국어를 제 1 언어로 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근전의 동시대나 후배 문단인들의 증언도 있지만 그 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해놓고 있어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다.

사회에서 저를 작가라고 하는데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우연한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시절, 그러니까 위만때 우리 가정은 몹시 빈한하여 아이들이 학교 다닐 형편이 못됐지요. 그중 제가 학교에 다녔는데 복식반을 꾸리는 농촌소학교에서 전부 일본말로 6년을 배웠습니다. 조선글을 1년밖에 못배우고 한쪽마을에서 살다나니 한어말은 잘했으나 글을 몰랐지요. 그러다가 해방맞아 혁명에 참가하여 문자를 좀 장악하게 되자 우리 조선족인민들이 당의 령도밑에 새사회를 건설하는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날따라 부유해지는 참신한 새모습을 보고느끼고 하게 되니 자연 무엇으로 이러한것들을 표달해보려는 충동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쓰게 된 것이 통신같은것들인데 아마 이것이 그후 창작의 첫 계기랄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를 잘하셨는데 <<심청전>>, <<춘향전>>, <<량산백과 축영대>>, <<사씨남정기>> 등 하여튼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영향도 매우 컸지요.⁵

위의 인용문에서 보드시피 리근전은 1년 밖에 조선글을 배우지 않았고 한어로 말하기가 더 편하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제 1 언어’, ‘최선의 언어’,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 중국어임을 의미한다. 다시 인용문의 말미에서 “그러다가 해방맞아 혁명에 참가하여 문자를 좀 장악하게 되자”고 고백하는데 이때 장악한 문자가 한어인지 조선어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리근전은 “혁명에 참가하여 문자를 좀 장악하자” 문학적 충동을 느껴 통신 등 글쓰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이때 장악한 문자가 리근전에게는 문학창작의 제 1 언어, 즉 최선의 언어일 것임은 물론이다. 리근전은 해방 맞아 의용련, 무장공작대, 토지개혁공작대에 참가하며 후에는 길림시에서 당무사업에 종사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력은 리근전이 부대에서 문자를 장악했음을 보여준다. 부대에서 장악한 문자란 두말할 것도 없이 한어이다. 그의 처녀작 「사소한 문제(小问题)」 역시 중국어로 창작되어 중국어 잡지 「동북문예」에 발표되었다.⁶ 리근전에게 있어서 중국어는 제 1 언어로 이미 모국어의 위치에 있는 것이며 그는 작품의 구상과 창작 모두를 중국어로 진행한다. 그러므로 리근전의 중국어 창작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중어 글쓰기가 아니며 단일 언어의 창작이다. 이는 일제말기, 일본어 글쓰기에 대한 논쟁을 두고 구카프 서기장 임화가 제기한 표현 원본주의와 동일선상에 놓여있다.

임화는 「말을 의식한다」(『京城日报』, 1993. 8. 16-20)에서 그의 표현 원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표현원본주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작가란 어떤 경우에도 최선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따라서 ‘좋은 말’이란 자기가 표현하기에 알맞고 타인이 읽기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부자연한 말은 좋지 않은 말이다. 창작을 일본어로 할 것이냐 모어인 조선어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란 이로 보면 작가에게 있을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자연스럽게만 하면 ‘좋은 말’ 급에 속하기 때문이다. 임화에 의하면 작가의 마음이란 표현에의 의지인데 이는 완벽함과 미를 의욕한다. 이것만이 전부이기에 어떤 정치적 경향성도 앞설 수 없다. 작가의 이런 의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말은 물을 것도 없이 자연스러운 말이다.⁷

물론 임화의 이 표현원본주의는 일제 말기, 일본어 글쓰기에의 강요라는 외적인 상황에

⁵ 리근전, 김경훈 대담, 「력사를 통한 민족의 녀을」, 위의 글, 70 쪽.

⁶ 리근전, 「문학창작의 첫발자국」, 『홀러간 세월』,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7, 120-126 쪽 참조.

⁷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78-81 쪽 참조.

대응한 발언이지만 ‘최선의 언어’, ‘자연스러운 말’이란 명제는 리근전의 중국어 창작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리근전의 중국어 창작은 일제말기, 일본어 글쓰기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바, 거기에는 어떠한 외적 상황의 압력 내지 강요가 없었으며 순수하게 작가의 언어적 조건에 의한 것이다. 건국 후, 조선족은 중국 공산당의 민족구역자치제도 정책⁸에 의해 1952년 9월 3일⁹ 연변에 ‘연변조선민족자치구’¹⁰를 설립하고 민족구역자치¹¹를 실시하였다. 민족구역자치의 실시로 하여 중국 조선족은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화, 풍속과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갖게 되었고 조선어와 중국어 이중 언어 사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물론 그의 첫 장편소설 『범바위』가 창작되던 1959년, 중국 조선족 문단에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일부에서는 문학 언어의 측면에서 한어와의 융합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논조까지도 있었으나 그러한 비판은 주로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에 치우쳤다. 언어의 측면에서 조선어로의 창작과 발표는 여전히 가능했는데 그것은 조선족의 많은 작가들이 중국어 수준의 제한으로 사실상 중국어 창작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근전의 중국어 창작은 작가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말, 좋은 말, 자유로운 말의 선택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끼어들 틈이 없다. 그의 창작 동기에 대하여 리근전은 “문자를 좀 장악하게 되자 우리 조선족인민들이 당의 령도밑에 새사회를 건설하는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날따라 부유해지는 참신한 새모습을 보고 느끼고 하게 되니 자연 무엇으로 이러한것들을 표현해보려는 충동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창작 충동이 조선족의 생활과 모습을 표현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리근전이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조선족의 생활을 그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 도구인 중국어로 표현한 것은 그러므로 여타의 조선족 작가들이 조선족의 생활을 그들에게 최선의 표현 도구인 조선어로 표현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⁸ 민족구역자치제도 정책은 중국의 기본국책과 기본제도이다. 1949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전야에 북경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주덕해가 동북의 100만에 달하는 조선족 인민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각 민족 대표들과 함께 건국대사를 토론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장령>>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여러 민족 인민들이 공동으로 세운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중국경내에의 여러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며 지난날의 민족차별시정책과 편견을 타파하고 민족 압박과 민족 분열 행위를 금지하여 서로 단결하고 서로 도우면서 새 중국을 여러 민족이 우애, 합작하는 대가정으로 건설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각 소수민족이 집거한 구역에서는 마땅히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여 민족 집거의 인두대소와 구역대소를 나누지 말고 분별있게 각종 민족자치기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로부터 중국 공산당은 최종적으로 민족구역자치를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중국의 기본정책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설립된 민족 자치구는 1947년 5월 1일에 설립된 내몽고 자치구이다. 김동화, 『중국조선족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의 역사적 고찰』, 『당대중국조선족연구』, 집문당, 1995, 29-35쪽 참조.

⁹ 9월3일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설립 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연변에서는 해마다 ‘9.3’ 명절을 성대히 기념한다.

¹⁰ 1952년 8월 29일, 연변에서는 각족 각계 제 1차 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고 <<길림성연변조선민족자치구인민정부 조직조례>>를 일치하게 통과하였으며 주덕해를 주석으로 한 자치구인민정부를 조직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할데 관한 결의를 통과하였다. 9월 3일, 연길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창립대회를 거행하고 자치구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1955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근거하여 자치구를 자치주로 개칭하였다. 9월 15일 길림성장백조선족자치현이 설립되었으며 요녕성에서도 5개의 자치향, 내몽골자치구에서도 1개의 민족향을 세웠다. 김동화, 위의 글, 35쪽.

¹¹ 민족구역자치는 중국공산당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정책이다. 민족구역자치란 당과 국가의 통일적인 영도 하에 소수민족이 비교적 집중하여 살고 있는 지역을 토대로 하여 그에 상응한 자치지방과 자치기관을 세우고 소수민족이 그 지방에서 주인으로 되어 자체로 자기 민족내부의 지방 사무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송관덕, 『연변의 민족간부양성사업에 대한 역사적 회고』, 『당대중국조선족연구』, 위의 책, 51쪽.

이러한 중국인과 다름없는 뛰어난 중국어 수준과 중국어 감각, 그리고 중국어로의 작품 구상과 중국어 창작은 리근전으로 하여금 날카로운 정치 감각과 현실 감각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견해, 공식 입장과 일치함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중국 조선족의 많은 작가, 문인들은 번역을 통하여 중앙의 정책이나 결책 등을 수용함으로써 시간적, 심리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선족 문단과 중앙의 공식입장과의 거리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용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해방후 연길이 조선족문학의 중심으로 되었음은 이미 언급한바 있다. 지정적인 시점에서 보면 연길은 중앙문단의 중심인 북경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이 거리는 단지 지리적인 거리뿐만아니라 정보적, 문화적인 거리였다. 그리하여 중앙문단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유행되는 문학사조는 흔히 1, 2 년이 지나야 연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접수자의 시점에서 볼 때 중앙문단의 문학적인 사조가 려과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조선족문학에 파급되는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연변의 문예활동을 주도하는 지도기관이 인정하는 문학리념과 중앙의 문학리념이 어떤 경우에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손을 들어주는 문학작품이라도 연변의 경우에는, 특히 연변에서 창작된 경우에는 공개발표되기가 힘들었다. 이는 개별적인,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공명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형성되고 고체화된 현상이었다. 반우파투쟁부터 문화대혁명 결속까지 줄곧 이어진 정치공명시기에 조선족작가들은 정치의 참조계와 문학의 참조계를 중앙에 둘 수밖에 없었고 결론을 팔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있어서 문학의 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생존과 그에 따른 육체적생존이 위협을 받았었기 때문이다.¹²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다시피 중앙의 공식입장과 조선족 문단의 거리는 물론 중국어의 직접 수용과 번역을 통한 수용과의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중국 내에서 주체민족과 소수민족의 차이, 중국 내의 기타 소수민족과도 구별되는 과정, 월경 민족으로서 중국 조선족의 역사.철학적 범주로서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특유의 정치적 눈치 보기 등 보다 복잡한 정치적.역사적.현실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가 본질적으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거리 형성에서 언어의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리근전은 조선족의 기타 작가들과는 달리 중국어 원문을 그대로 접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공식입장과의 거리를 최대한 좁힐 수 있었다. 리근전은 조선족의 모습과 생활, 그리고 중국의 각 역사발전에서 부딪친 민족적 문제 등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파악하며 그것을 중국인민의 문제라는 보편적 범주에 승화시킬 수 있는 예리한 정치적 안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리근전은 조선족 문단에 리근전 문학현상을 형성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소설 속에 “당의 령도하에서 인민들이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자각적인 투쟁에로 쫓기한다”는 패턴을 형성시킨 것이다.

이러한 사상과 패턴은 1955년 발표한 단편소설 「홍수질 때」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야기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다. 홍수가 질 때 마을에 숨어있는 지주와 그의 즐개인 박영만은 파괴활동을 하기 위해 제방뚫을 허물려고 한다. 이때 창길이와 순희가 생명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과 싸워 제방을 구해내고 나중에 파괴분자들을 붙잡는다. 이 작품은 예술성을 획득하지는 못했으나 중국 조선족 소설문학에 처음으로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는 계급의 적을 등장시킴으로써 계급투쟁을 반영하는 소설의 시작으로 되었다는 그 정치.사상적 의미가 있다. 이로부터 문화대혁명이 결속될 때까지 조선족 문단에는 계급투쟁 반영의 소설이 대거 창작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조선족 작가들의 민감한 반응과 눈치 보기, 발 맞추기였다.

중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파악에서 리근전은 그 어느 조선족의 작가에 비해서도 우위에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그가 중국 공산당의 주요한 당정간부였다는 것 외에도 중국어가 그의 제 1 언어였다는 언어적 감각의 일치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많은 작가들이 반우파투쟁에서 창작권리를 박탈당했지만 그만은 이 시기 조선족

¹² 리광일, 「해방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 연변대학교 박사논문, 2002, 114-115 쪽.

소설문단에서 작가적 지위를 확고하게 수립하였고¹³ 1962년 그의 첫 장편소설이자 해방 후, 조선족의 두 번째 장편소설인 『범바위』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리근전의 중국어 창작의 의미는 중국 북경에 거주할 당시, 김학철의 중국어 창작과 연계시켜 보면 한층 더 명쾌해진다.

김학철이 북경에 거주하게 된 것은 어떤 준비된 상황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연한 계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6.25'전쟁 중, 피난 차 압록강을 넘어 중국 집안까지 왔던 김학철은 거기서 조선의용군 시절 전우 서취를 만나며 서취의 권고로 북경 중앙문학연구소 소장 정령(丁玲)의 문하에서 문학수업을 받게 된다.¹⁴ 김학철은 1951년 1월부터 1952년 10월 연변으로 가기 전까지 북경 중앙문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한다. 이때 김학철은 중국어로 중편소설 「범람(泛濫)」과 단편소설집 『군공(軍功)메달』을 인민문학출판사에 출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김학철은 훗날 “정령.풍설봉 두 분의 덕분”¹⁵이라고 쓰고 있다. 여기서 “정령.풍설봉 두 분의 덕분”이란 작품 내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발표의 문제일 수도 있다.

김학철에게 있어서 중국어는 상해 의열단 시절 그의 나이 19세 때, 투쟁의 수요에 의해 배운 것이다.¹⁶ 서울에서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문학지 『조선문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소설 창작에도 꿈을 두었던 청년이 19세 때부터 배운 중국어가 그의 언어체계에서 외국어의 차원을 넘어 모국어와 동등한 제 1언어로 자리 잡기란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그는 서울 보성고등학교 시절 『조선문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첫 번째 습작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형성된 문학 언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서울말이다. 중국으로 건너온 초기, 상해 의열단 시절 그는 중국어를 배우기는 했으나 의열단 자체가 조선인 민족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사용했던 주요한 언어가 조선어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뒤 황포군관학교 재학 시 조선인 독립중대의 형성, 조선의용대의 건립 등으로 하여 그는 늘 조선인들 속에서 생활하였는바 그의 제 1언어가 어디까지나 조선어였음은 자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김학철이 태항산 시절, “양계(陽界)와 고생우(高生友) 두 청년이 룡색에다 문세영(文世榮) 편찬으로 된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어 사전』을 짚어지고 태항산으로 들어왔을 때”, 깊은 감명을 받고 “우리의 한글은 불사조다.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¹⁷라고 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학철이 북경 시절, 그에게 가장 ‘편한 언어’, ‘최선의 언어’가 될 수 없었던 중국어로 창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외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우선 연변에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되기 전이었고, 연변 즉 만주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이해가 전무했던 김학철이 광복 후, 재정비 중이었던 연변의 조선족 문단에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찾기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것이 ‘6.25’전쟁 중이었음을 감안하면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었다. 북경에서 문학작품을 발표하기 위해 김학철은 중국의 발표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어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때 연변 즉 만주의 조선족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김학철은 그의 독자로 중국인들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독자로 확보하려면 중국어로 창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¹³ 리광일, 위의 박사논문, 91-92쪽 참조. 그러나 민감한 정치적 감각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근전 역시 그 뒤의 문화혁명은 무사히 넘길 수 없었는데 그의 장편소설 『범바위』가 ‘민족주의’를 고취한 ‘대독초’로 몰려 투쟁 받았고 그 역시 ‘독초’의 작가로 타도되었다. 이는 과정.월경 민족으로서 조선족의 작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정치적 한계였다.

¹⁴ 김학철, 『최후의 분대장』, 문학과지성사, 1995, 340-351쪽 참조.

¹⁵ 김학철, 위의 책, 346쪽.

¹⁶ 김학철, 위의 책, 113쪽.

¹⁷ 김학철, 위의 책, 249쪽.

그러므로 김학철의 중국어 창작은 발표기관과 독자 문제 등 외적인 상황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작가의 내적인 언어조건에 의한 것과 외적인 상황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리근전과 김학철의 중국어 창작의 의미가 가지는 이러한 차이는 훗날 조선어로의 창작과 발표가 가능해졌을 때 그들의 번역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리근전은 조선작가 이기영의 장편소설 『고향』을 중국어로 번역 출판하였고 김학철은 정령의 장편소설 『태양은 桑干河를 비춘다』와 노신의 중편소설집 『啊 Q 正传』과 중편소설집 『祝福』를 조선어로 번역 출판하였다. 이는 리근전과 김학철의 중국어 창작의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번역 발표의 의미

리근전의 두 편의 장편소설 『범바위』와 『고난의 년대』는 모두 중국어로 창작된 뒤 번역 발표된 작품이다. 여기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두 편의 소설 모두 중국어로 발표된 뒤 다시 조선어로 번역 발표된 것이 아니고 먼저 조선어로 번역되어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범바위』는 1962년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조선어로 발표된 뒤, 인민문학출판사에서 중국어로 출판하려다 문화대혁명 중, ‘민족주의’를 고취한 ‘독초’로 비판 받으면서 출판이 좌절되었다. 정치적 동란이 계속된 후, 1982년에야 사천인민출판사에서 중국어로 출판하게 되었다. 『고난의 년대』는 원본인 중국어판은 출판되지 않았고 번역되어 조선어판으로만 출판되었다. 보통 원작이 발표되고 다시 원작에 대한 번역 작품이 발표되는 것에 비해보면 리근전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에 속할 것이다.

중국어로의 출판 즉 원작의 출판이 여의치 않아서일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1960년대 초 당시, 리근전이 중공연변주위 정책연구실 부주임, 중공연변주위선전부 부부장 등 당의 요직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가설은 성립되기 어렵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행정체계 상, 중공연변주위선전부라고 하면 연변 지구의 신문사, 방송국, 출판사, 잡지사 등 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언론매체의 사전검열을 책임진 주요한 부문이다. 이런 부문의 부부장으로 있었던 리근전에게 중국어판 출판은 그리 문제되는 일이 아니었음은 자명한 것이다. 실제로 리근전은 60년대 초를 선후하여 한문으로 즉 중국어로 산문집 두 권을 출판하였다. 그러므로 리근전의 번역 발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보다 자세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리근전의 번역 발표에 대해서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측면이다. 두 편의 작품 모두 조선족의 모습과 생활 그리고 정치 현실에 대한 이념적 대응 등을 보여주고 있다. 『범바위』는 광복을 맞은 시점에서 조선족 인민들의 심각한 선택의 갈등을 다루고 있으며 김치백이를 비롯한 서위자촌 조선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국민당 반동파와 조선인 친일지주 등과의 투쟁에 궤기하는 과정, 서위자촌 조선족 소년 김근택 즉 호랑이가 무공대의 전사, 간부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광복 후, 조선족 인민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고난의 년대』는 조선족의 중국으로의 이주의 원인 과정, 중국 땅에서의 정착 과정, 항일투쟁, 중국 공산당 이념에의 동조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광복 후 조선족의 중국 선택과 중국 공산당 이념의 선택은 필연적인 것임을 보여주었다. 두 편의 장편소설 모두 조선족을 주요 인물로 설정하고 있으며 조선족의 역사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적 측면은 조선어로 번역하여 발표한 1차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독자층에 대한 고려와 관련된 측면이다. 작가는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할 때,

이상적인 독자층을 미리 상정하게 된다. 리근전의 경우, 독자층에 대한 고려는 작품의 내용, 더 주요하게는 작품의 창작 동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문학의 효용성의 측면에 대한 고려와 연관된다. 리근전이 조선족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53년 신문기자로 있을 때, 조선족의 역사에 대한 한 소학교 선생의 질문을 받고나서부터이다. 그때로부터 리근전은 조선족의 역사에 대한 확인과 복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그것이 민족교육의 측면에서도 큰 효용성을 가짐을 알게 된다. 또한 차츰 항일전쟁시기와 해방전쟁시기, 항미원조전쟁시기 조선족의 역사적 공훈을 알게 되고 벼농사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 이로부터 리근전은 더욱 강렬한 역사 복원 의식을 갖게 되며 작품 창작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작품을 통하여 조선족 인민들로 하여금 조선족의 역사를 알게 하고 민족적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작품 창작의 동기이고 목적인데, 이는 리근전이 처음부터 조선족 인민들을 제 1 독자층으로 상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두 편의 장편소설 모두 먼저 조선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은 독자층에 대한 고려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는 60년대는 물론 80년대 말까지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중국어 수준의 제한으로 중국어로 된 책을 그다지 읽지 않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리근전은 두 번째 장편소설 『고난의 년대』를 창작할 때, 작품의 구상단계로부터 미리 훗날 이 소설의 번역을 부탁할 강정일을 찾아 작품의 구상과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집필과정에서도 자주 그를 찾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는 그가 구상단계로부터 『고난의 년대』의 번역발표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창작 동기와 목적으로 인한 조선어로의 번역 발표는 중국 공산당의 당정간부이면서도 그들과는 막바로 갈아질 수 없는 민족간부라는 특수한 이름이 갖고 있는 민족적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의미한다. 실제로 1962년 당시 『범바위』를 조선어로 번역 발표한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동반한 것이다.

1957년부터 196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연변지역에서는 ‘민족정풍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자치와 조선인의 이익을 옹호하고 韓민족의 고유문화를 보존 발전하려는 조선족 출신의 간부와 지식인들은 ‘지방민족주의자’, ‘우경분자’ 등으로 매도되었고 汉族 중심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한국어와 조선족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교육보다는 중국어와 중국혁명에 대한 교육과 동화가 강조되었다.¹⁸ 특히 1959년에 있는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이 조선족 문단에 준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 정도가 지나쳐 조선족 작가들이 조선족 생활을 반영하는 것을 지방민족주의의 표현으로 인정하였는데 한 연극단이 汉族의 극을 조선족의 생활로 각색한 것도 비판당했으며 조선족의 전통적인 애정윤리를 다룬 극시 「김옥희와 팔거북」 등이 모두 ‘독초’로 비판대에 올랐다. 더욱 극단적인 것은 부동한 민족어간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그들간의 ‘공동성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함과 아울러 한어와의 융합까지 주장하면서 조선어의 규범화는 ‘언어순결화’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모두 “오류적이고 반동적인 것이므로” 견결히 비판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런 정세 하에 문학지 『아리랑』(1957년 7월호)에 발표된 김창걸의 「연변의 창작에서 제기되는 민족어규범화문제」라는 논문도 호된 비판을 당하게 되었다.¹⁹

이러한 정세에 중국 공산당의 지방 당정 요직에 있었던 리근전이 둔감했을 리는 없다. 조선족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방민족주의로 몰아붙이고 심지어 조선어와 한어의 융합론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조선어로 번역발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인지를 리근전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는 없다. 그것은 그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리근전이 굳이 조선어로 번역 발표한 것은 그의

¹⁸ 김영모, 『중국 조선족 사회 연구』, 한국보지정책연구소, 1992, 172 쪽.

¹⁹ 조성일·권철,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 292-293 쪽.

민족적 정체성 혹은 민족의식의 근저에 닿아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것은 그의 내면 풍경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중국어 창작에 대한 작가 자신의 내면 풍경이다. 내면 풍경이란 작가론, 작품론보다 일층 은밀한 또는 섬세한 영역이며 그 섬세함이란 창작에서의 의식과 무의식의 분리점에까지 추구해들어갈 때 발생하는 것이다. 내면 풍경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문학만이 가진 또는 예술만이 가진 현실에의 환원 불가능한 마음의 내밀한 요소의 작용과 그 작용이 창작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는 전제를 승인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말을 바꾸면 작가론에서도 빠뜨리는 요소, 작품론에서도 다스리기 어려운 미묘한 삶의 감각적 인식에 관한 것을 포착하고 이를 확대경으로 드러내어, 어떤 의미 단위를 환원해보이는 것을 두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면 풍경의 탐구이다. 내면 풍경의 실상은 창작의 원초적 충동에 걸려있다.²⁰

리근전은 생전에 그 어떤 글에서도 『범바위』와 『고난의 년대』가 중국어로 창작된 것이고 조문판은 번역된 것임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외려 「시대감과 주제사상-장편소설 『범바위』를 소개하면서」에서 “장편소설 『범바위』는 1962년에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하게 된 것이다. 현대 문화대혁명때 그도 액운을 면치 못하고 끌려나와 비판을 받다가 끝내 해빛을 보지 못한 채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쓰면서 소개하였다.”라고 씀으로써 마치 원 창작이 조선어이고 후에 중국어로 번역된 듯한 착각까지 주고 있다. 왜 그는 중국어 창작임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작가의 내면 풍경에 관계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굳이 해석해본다면 그것은 작가의 민족적 정체성과 민족의식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근전의 수필집 『흘러간 세월』에 수록된 수필들을 보면 리근전이 우리 민족의 역사, 풍속 등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필 「타향살이」, 「옛날의 며느리들」, 「열두세 삼베옷」, 「우리 민족의 혼인잔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 수필집의 서언 「내 수필을 읽는 이들에게」에서 그는 “수필은 더구나 작가 고의로 만들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꾸밈이 없고 진솔해야 한다. 텅텅하면 텅텅한대로, 제 목소리 못났으면 못난대로, 제 얼굴 탁하면 탁한 대로, 제 령혼의 몸부림이길 강요한다”고 수필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그가 정말 그의 수필에서 이러한 의식을 실현하였다면 그의 수필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내면 풍경의 한 부분을 엿볼 수 있다. 조선족이라면 당연히 조선어를 잘해야 한다는 자의식을 작가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지나친 비약일지도 모르나 작가가 일관적으로 드러내 보인 민족적 정체성과 민족의식과 연관시켜 보면 타당한 해석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리근전에게 있어서 번역발표란 조선족의 삶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로서의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창작에 앞서 미리 상정한 독자층으로서 조선족 독자대중을 염두에 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조선족 작가로서의 자의식 때문에 감추고 싶은 불편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적어도 리근전이 첫 장편소설을 발표하던 1960년대로부터 두번째 장편소설을 발표하던 1980년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선족 문학작품은 조선어로 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중국어 창작은 전혀 고려되지 않던 부분이었다.

4. 중국 조선족 문학의 좌표 설정 문제

이제 우리는 중국 조선족 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문제, 즉 좌표 설정 단계에 와있다.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 문학은 해외 한민족 문학의 한 갈래로서의 측면만 부각되어왔고 그의 다른 한 측면인 중국 내 소수민족 문학으로서의 측면은 거의 인식되지

²⁰ 김윤식,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위의 책, 239 쪽.

않고 있었다. 재만조선인문학의 기초 위에서 광복 이후, 미귀환한 중국 경내 조선인 작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 조선족 문학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중국의 굴곡적인 역사발전과 함께 중국의 사회정치적 변화와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스스로의 명맥을 이어왔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하여 문예의 다원화가 가능해졌을 때, 80년대 중반을 전후로 중국 조선족 문학은 <<연변문학>> 판매 부수가 800만에 육박할 정도로 광대한 조선족 독자층을 형성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다. 92년 한중수교와 함께 한국문학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국 조선족 문단은 한국을 통해 다양한 문예이론과 문예사조를 유입하고 창작방법을 유입하는 등 한국문학 배우기에 주력하였으며 한국의 작가 내지 문학 평론가, 연구자들도 중국 땅에서 한국어로 창작된 조선족 문학에 경이로움과 감동을 금치 못했으며 그리하여 리근전, 김학철 등 조선족 1세대 작가들의 작품이 그들에 의해 한국의 독자대중들에게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관련 연구 내지 평론도 이루어졌다. 혈통과 언어의 동질감은 조선족 작가들로 하여금 한국문학에 강한 친화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는 조선족 문학의 한민족 문학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한중수교는 조선족 문학에 참신한 충격과 발전의 계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역으로 조선족 문학의 침체와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개혁개방과 한중수교가 중국 조선족 문학의 기반인 중국 조선족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80년대 말까지 대체적으로 무리없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던 조선족 사회는 조선족 마을 즉 촌락공동체를 그 하위 구조로 하고 있었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조선족 농촌 인구의 대규모 도시 진출과 한중수교로 인한 노동력 수출은 조선족 사회의 기반이었던 마을 즉 촌락 공동체의 붕괴와 피해를 야기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존폐설이 대두되게 되었다.

조선족 사회의 이러한 위기설은 조선족 문학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독자대중의 대대적인 축소와 시장경제의 충격으로 인해 직면한 존재 위기이다. 물론 개혁개방 이후 독자대중의 축소와 시장경제의 충격으로 인해 존재 위기에 직면한 것은 조선족 문학만이 아니다. 중국문학 역시 침체와 위기를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선족 문학은 조선어로 씌어져 원래부터 그 독자대중이 중국 내 200만 조선족에 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는 한층 절실한 것이었다. 현재 중국 조선족 문학은 해외 한민족문학의 한 갈래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문학의 변두리적 위치에 처해있고 중국문학의 범주에서는 그 존재가 망각되어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조선족 문학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변화된 외적 환경에 적응하여 중국어 창작과 번역 발표를 적극 추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우선 다음과 같은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할 것이다. 하나는 한국문학의 범주 설정 문제인데 중국어로 씌어진 문학이 과연 한국문학의 범주 즉 해외 한민족 문학의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일본어로 씌어진 재일교포문학이나 영어로 씌어진 재미교포문학이 해외 한민족문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에 비추어 이 역시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나 여기에는 한층 내밀한 부분이 있어서 선뜻 단정 짓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 조선족의 경우 민족어의 습득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내면세계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조선족은 중국 내에서 민족어에 의한 주체민족과의 이질성 외에 기타 재일 교포나 재미 교포가 거주국에서 겪는 차별과 소외 등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조선족은 민족어의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두번 째 문제 즉 민족어(한국어 내지 조선어)와 중국어 창작의 관계 문제가 제기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조선족 사회 해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떠오른 문제가 바로 민족교육의 유실이였다. 조선족의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향유하기 위해 조선족 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한족 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민족어 교육이 난관에 부딪혔으며 민족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많은 조선족 학생들이 배출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민족적 억압이나 차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중국에서 민족어의 포기는 결국 조선족임을 망각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자신이 조선족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작가에 의해 중국어로 창작된 문학이 과연 제일교포문학이나 재미교포문학이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민족적 갈등이나 정체성의 갈등을 드러낼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중국어 창작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족어교육에 더욱 큰 문제를 제기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민족어교육과 중국어 창작은 과연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하지만 중국 조선족 문학이 더는 조선어 창작만 고집하면서 한국 문학의 변두리, 중국 문학의 변두리에 머물러있을 수 없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 조선족 문학의 변두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는 중국어 창작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이때 조심스럽게 제기해볼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번역이다. 1960년대 중국 조선족의 제 1세대 작가였던 리근전은 자기의 작품을 조선족 독자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선어로 번역하여 발표하였다. 역으로 조선어로 창작된 중국 조선족 작가의 작품들이 중국의 독자대중들에게 수용되고 소개되어 조선족 문학이 중국 문학 속에서 그 위상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선족 문학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중국어로 창작된 조선족 문학작품은 다시 조선어로 번역하여 조선족과 한국의 독자대중들에게 소개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언어를 잇는 교량으로서의 번역은 두 언어에 대한 고도의 숙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번역은 어쩌면 지금까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되어왔던 민족어교육과 중국어 창작 사이의 환충지대로, 양자가 서로에게 보완이 되도록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민족어교육과 번역 인재 양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경우 민족어교육과 중국어 창작의 관계 역시 유기적인 연관 관계로 재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번역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민족어교육은 포기될 수 없는 중요한 축으로 인지될 것이며 이는 민족어교육이 이념의 차원에서 현실의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개혁개방과 한중수교 이후, 중국 조선족 문학이 한국문학 권에서도 중국 문학 권에서도 변두리적 위치에 처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그러한 변두리적 위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국어 창작과 번역 발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국 조선족 문학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 독자들에게 전혀 소개되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했던 것은 중국 조선족 문학이 중국의 통용어인 한어가 아닌 조선어로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 조선족 문학은 줄곧 중국 조선족이라는 한정된 독자대중을 수용 층으로 하고 있었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조선족 농촌 사회의 도시화와 한중수교로 인한 조선족의 한국행은 조선족 사회 구조를 지탱하던 농촌 공동체의 해체와 붕괴를 가속화시켰으며 조선족 사회의 해체와 붕괴를

가속화시켰는데, 이리하여 조선족 문학은 원래 갖고 있던 제한된 독자대중들마저 이탈하게 되어 그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이러한 조선족 문학의 번두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중국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고 중국어로 창작한 뒤, 조선어로 번역하여 발표했던 중국 조선족의 제 1세대 작가 리근전의 중국어 창작과 번역발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리근전은 중국 조선족의 제 1 세대로서 광복 후, 미귀환한 작가이다. 그러나 리근전은 조선족의 기타 제 1 세대 작가들과는 달리 조선어보다는 한어에 익숙했으며 한어가 그의 습작기의 제 1 언어였다. 이는 리근전이 아버지를 따라 이주한 곳이 한족이 대다수 살던 지역이었고 그가 참군을 통해 부대에서 문자를 익혔던 것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리근전에게 있어서 문학창작의 제 1 언어, 자연스러운 언어는 조선어가 아닌 중국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근전은 자기가 조선어로 창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을 극히 꺼려했고 그의 대표작이자 중국 조선족 문학의 대표작이기도 한 두 편의 장편소설 『범바위』와 『고난의 년대』가 중국어로 창작된 뒤 역자에 의해 조선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것임을 끝까지 고백하고 있지 않다. 이는 리근전이 고향이었던 조선 자강도에서부터 몸에 배인 민족성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위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조선족 문학의 발전을 모색해야할 단계에 와있으며 조선족 문학은 더는 중국어 창작을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조선족 문학에서 중국어 창작을 적극 추진하는 문제는 해외 한민족 문학의 범주 설정이라는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와 민족어 교육과의 양립이라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를 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으로 민족어의 습득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선족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없다는 문제는 조선족에게 조선어야 말로 기타 민족과의 이질성을 인지시키고 민족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징표이다.

본고는 민족어 교육과 중국어 창작을 대립항 즉 대타적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환충지대로 번역 발표의 방안을 제시해보았다.